

<9월 6일 주일말씀 후 9월 9일 수요일말씀에 대한 참고 사항> - 목회자들에게

수요일에는 선생의 설교 중에서 ‘사랑’에 대한 설교 찾아서,
주일말씀에 이어서 전해 주면 좋다.

교역자들은 사회를 보면서 명 설교 전에 ‘전초’를 해 주는데,
주일말씀 내용 중에서 ‘핵심 내용’을 뽑아서
5분 정도 화끈하게 전초해 주면 좋다.

<명 설교 전>에는 항상 ‘전초’,
그리고 <명 설교 후>에는 항상 ‘마무리’를 잘해 줘야 된다.

<말씀 전>에 어떻게 소개하느냐에 따라서 ‘말씀의 집중도’가 좌우되고,
<말씀 후>에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에 따라서 ‘말씀의 은혜’가 더욱 좌우된다.

목회자들은 ‘명 설교’에 신경을 써야 된다.

꼭 목회자가 전체 중심을 잡아 이끌어 주면서
‘전초’와 ‘마무리’를 꼭 준비해서 해 줘라.

사랑 보고 택하고 뽑으신다

본 문 마태복음 22장 37-40절

할렐루야!

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의 평강을 빕니다.

오늘도 성령님께서 감동 감화로 역사하시니,
말씀을 들을 때 뜨거운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.

◎ 오늘은 **딱 한 가지 계시의 말씀**만 전해 주겠습니다.
그 계시의 말씀은 ‘<사랑> 보고 택하고 뽑으신다.’ 입니다.

이 말씀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앞의
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며,
이 시대 섭리인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.

고로 잘 듣고, 이해하고 깨달아 행하기를 바랍니다.

◎ 말씀 시작하겠습니다.

<말씀 시작>

◆ 어느 날 새벽 기도를 하면서,
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 한 가지를 물었습니다.

“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

<사람>을 뽑을 때 ‘어떤 것을 핵’ 으로 보고 뽑으십니까?

만일 ‘**세상 지식**’ 을 중심하여 시험을 보고 뽑는다면,
저는 자신이 없습니다.

만일 ‘**인물**’ 을 보고 뽑는다 해도
그 역시 저는 자신이 없을 뿐 아니라 아예 포기합니다.

만일 ‘**키**’ 를 보고 뽑는다면,
아예 성삼위께 뽑힐 생각도 안 합니다.

만일 ‘**어떤 명예나 권세나 재물**’ 을 보고 뽑는다면,
저는 빈 몸이니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뽑혀서 가도
시기도 질투도 없습니다.” 하고 물었습니다.

◆ 가만히 생각해 보니,

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서 ‘**세상의 것, 육의 것**’ 을 중심하여
그것을 보고 사람을 뽑으신다면,
선생은 거기에 뽑힐 자신이 없었습니다.

<삼위일체가 핵으로 보시는 것>이 ‘**세상의 것, 육의 것**’ 이라면,
선생은 합격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.

그래서 나와 섬리사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
성삼위는 ‘무엇’ 을 보고 사람을 뽑느냐고 대화하며 물어봤습니다.

◆ 만일 하나님이 ‘**세상 지식**’ 을 보고 사람을 뽑으신다면,
못 배운 사람이 볼 때 억울하고 공의롭지 못합니다.

만일 하나님이 ‘**인물**’ 을 보고 사람을 뽑으신다면,

예쁘고 잘생기게 태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볼 때 공의롭지 못합니다.

만일 하나님이 ‘키’ 를 보고 사람을 뽑으신다면,
아예 작게 태어난 사람들이 볼 때 공의롭지 못합니다.

만일 하나님이 ‘가진 재물’ 을 보고 사람을 뽑으신다면,
세상에는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 많으니
전체가 볼 때 공의롭지 못하고 억울합니다.

- ◆ 이에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.

“어느 시대 누구든지 ‘사랑’ 을 보고 뽑는다.”

- ◆ <성삼위를 정말 사랑하는 것>을 보고 뽑으신다면,
인물, 키, 세상 지식, 명예, 재물에 상관없이
누구든지 ‘사랑’ 은 할 수 있으니 공의롭습니다.

- ◆ <사랑의 자본과 자료>는 ‘마음과 생각’ 에서 나옵니다.
<마음과 생각>에서 ‘사랑’ 이 무한하게 나옵니다.

누구든지 ‘사랑을 일으키는 마음과 생각’ 이 있으니,
하나님 앞에 누구나 공평합니다.

또 누구든지 ‘사랑을 일으키는 마음과 생각’ 이 있으니,
“나는 못 배워서 못 한다. 나는 못생겨서 못 한다.
나는 키가 작아서 못 한다. 나는 돈이 없어서 못 한다.” 하며
하나님 앞에 어느 누구도 핑계 대지 못합니다.

- ◆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.

“<지식>을 보고 뽑으면, 머리가 나쁜 사람은 배워도 안 되니

온 인류에게 공의롭지 못하다.

또한 사람은 ‘개성’으로 창조하여
태어날 때부터 남자와 여자로 태어나고
또 ‘본 인물’을 가지고 태어나니,
타고난 인물은 가꿔도 한계가 있으니
〈인물〉을 보고 뽑아도 공의롭지 못하다.

〈키〉를 보고 뽑으면,
키는 노력해도 한계 이상은 키울 수 없으니
키 작은 사람들에게 공의롭지 못하다.

〈명예, 재물〉을 보고 뽑아도 그렇다.

배웠으나 못 배웠으나, 잘생겼으나 못생겼으나,
키가 크나 작으나, 돈과 명예가 있으나 없으나
사람이 〈마음과 생각〉, 그리고 〈몸〉만 있으면
나 여호와와 성령과 성자를 사랑할 수 있다.

고로 〈삼위를 정말 사랑하는 것〉을 보고 뽑는다.”

하셨습니다. (할렐루야! 아멘!)

<잠시 쉬었다가>

◆ 선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백하며 말했습니다.

“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정말 공의로우십니다.
역시 ‘사랑의 본체’ 이시며 ‘전능자’ 이십니다.

〈사랑〉으로 ‘우주 만물과 인간’을 창조하시어

<창조 목적>을 이루심이 절대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!

누구나 할 수 있는 ‘사랑’ 을 보고 뽑으시니 저도 불만이 없고
모든 사람들도 불만 없이 자신 있게 할 수 있습니다.

정말 좋아요!

저부터 더욱더 성삼위를 사랑하며,
이 말씀을 모두에게 전해 주어
<자신감>과 <용기>를 가지고 삼위를 더 사랑하게 해 주겠습니다.

어느 누구라도 ‘하나님이 뽑은 자’ 라면,
목숨 다해 성삼위를 사랑해서 뽑혔으니
절대 시기하거나 질투하면 안 되겠어요.” 했습니다.

- ◆ 선생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그 위치에 세우실 때 생각했습니다.

‘하나님과 성자는 왜 저 사람을 뽑아 저기에 세우셨지?
무엇을 보고 뽑으셨을까?’ 했습니다.

결국 알고 보면,
변치 않고 <성삼위>를 사랑하고 <보낸 자>를 사랑하며
믿음과 사랑을 지킨 자들이었습니다.

- ◆ 또 조은이를 ‘복직된 하와’ 로 세우실 때도 생각했습니다.

‘조은이보다 먼저 온 자들이 많은데,
왜 조은이를 ‘복직된 하와’ 로 뽑으셨을까?’

역시 오늘 성경 본문 말씀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변치 않고
마음과 뜻과 목숨 다해 <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>를 사랑하고,
<보낸 자>도 그렇게 사랑해서 뽑혔습니다.

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이 없었기에 뽑혔습니다.

그뿐 아니라, <복직된 하와>로 예정되어 있어도
본인이 그만큼 행했기에 뽑혔습니다.

<사랑의 조건, 행실의 조건>을 볼 때 성삼위께 합당하여 뽑혔으니
어느 누구도 시기하거나 질투하면 안 됩니다.

◆ 선생도 그러합니다.

어떻게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몸이 되어
지상에 ‘이 시대 하나님의 뜻’을 실현하며
하나님의 최고 목적인 ‘창조 목적’을 실현하는 자가 됐을까요?

역시 ‘**사랑**’ 보고 뽑혔습니다.

예정되어 있어도,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
<성삼위를 지극히 사랑하는 것, 그만큼 행하는 것>을
절대적으로 보셨습니다.

◆ 선생도 지금까지 사람을 뽑을 때는

<변함없이 진정 사랑하는 것>을 보고 뽑아 왔는데,
그것이 <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방법>이었다는 것을
더욱 깨닫고 감사 감격했습니다.

◆ 여러분 모두가 그러합니다.

<신부 시대 성약역사, 휴거 역사>에서는
<사랑>을 핵으로 보고 뽑으신다는 것을 명심하고,
누구나 자신감을 가지고 ‘삼위의 사랑의 대상체’에 도전하고

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기를 축원합니다.

<잠시 쉬었다가>

- ◆ 하나님은 지식, 인물, 키, 학벌, 돈, 명예를 보고 뽑지 않으십니다.
<사랑>을 ‘핵’ 으로 보시고, 사랑 한 가지를 보고 택하십니다.

그런데 자기가 “나는 이것이 부족하다. 저것이 부족하다.” 하며
필요 없는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.

삼위일체와 보낸 자를 100% 사랑하고 그 마음이 변치 않으면
그것 한 가지를 보고 택하시어 귀히 여겨 주시며
그 영혼을 휴거시켜 영원히 사랑하며 같이 살아 주십니다.

<사랑>이 ‘핵’ 이고 ‘목적’ 입니다.

- ◆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은 ‘삼위와 사랑 일체’ 입니다.
삼위와 사랑 일체 되면 ‘만사가 다 성공’ 입니다.

하지만 ‘사랑’ 이 깨지면,
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같이 ‘다른 것들’ 도 다 내던져 버리십니다.

- ◆ 인간은 하나님 앞에 ‘한 가지’ 를 잘해서
그로 인해 하나님께 잘 보이게 되어
‘다른 것들’ 도 잘되고 성공하게 됩니다.

- ◆ <사랑>을 깨뜨리는 자는
<삼위와 사랑할 자기 생명>을 깨뜨린 자가 되므로
<사랑>이 끝나게 됩니다.

핵심인 <사랑>이 끝나니, 모든 것이 다 끝납니다.

- ◆ 성삼위가 ‘**사랑 때문에 택한 자**’가
성삼위와 주를 사랑하지 않고 보통으로 살면,
인생 맛도, 가치도, 보람도, 기쁨도 별로입니다.

결국 ‘**남남**’이 되어 살게 됩니다.
- ◆ <밭에 감춰진 보화>를 보고 ‘**밭**’을 사듯이,
하나님은 <사랑>을 보고 ‘그 사람이라는 인생 땅’을 사십니다.

<보화>가 묻혀 있지 않으면 ‘**밭**’은 별 가치가 없듯이,
<사랑> 빼면 ‘그 인생’은 별 가치가 없습니다.
- ◆ 변함없는 사랑, 거짓되지 않은 진실한 사랑, 영적인 사랑,
속이지 않는 사랑, 배신하지 않는 사랑,
어떤 상황에서도 등 돌리지 않는 사랑, 첫 마음 그대로의 사랑...
하나님은 이런 사랑을 보시고 사람을 뽑아 쓰시니
모두 이 말씀을 깨닫고 그와 같은 사랑을 하기를 축원합니다!

<전환>

- ◆ 세상에서는 1등, 2등, 3등까지만 뽑아서 상을 주잖아요?

그렇다면 <사랑>에도 ‘**순위**’를 매겨서
1등, 2등, 3등만 뽑으실까요? (잠시 쉬었다가)
- ◆ 하나님은 <사랑>을 보고 사람을 뽑으실 때,
1등, 2등, 3등만 뽑지 않으십니다.

누구든지 마음에 들게 성삼위를 사랑한다면

인원수에 제한 없이 다 뽑으십니다.

남자든 여자든, 키가 크든 작든, 예쁘든 안 예쁘든,
나이 먹었든 젊든, 나이가 너무 들어 쪼글쪼글하든 팽팽하든,
힘이 없든 있든, 돈이 많은 없든, 건강하든 병이 들었든
돼지가 “너 웃기게 생겼다!” 하는 사람까지

누구든지 마음에 들게 성삼위를 사랑한다면

인원수에 제한 없이 다 뽑으십니다.

- ◆ <육신>은 아무리 예쁘고 잘생겨도 시간이 가는 대로 매일 늙습니다.

그러나 <영혼>은 그렇지 않습니다.

<자기 육신>이 전능하신 삼위일체를 사랑하고
그 보낸 자를 사랑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대로
매일 아름답게 변화됩니다.

- ◆ 선생의 어머니도 돌아가시기 전에 사진을 보니,
<육>은 무서울 정도로 늙어 있었습니다.

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 영을 보니,
<영>은 아름다움을 휘날렸습니다.

20대에서 30대 초반의 최고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.

역시 하나님은 ‘사랑’을 보고 ‘영’을 뽑으십니다.

- ◆ 정말 하나님은 지식, 인물, 키, 돈, 명예를 안 보시냐고요?
그것은 선생이 입증할 수 있습니다.
그 표상으로 ‘선생’을 보면 압니다.

◆ 선생은 매우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.

내가 사는 월명동도 사람 살 곳이 못 되는 환경이었습니다.

게다가 벽을 살짝만 밀어도 **쓰러**져 버릴

150년 된 토담집에서 태어났습니다.

가난하니 못 배웠습니다.

인물도 뛰어나지 못했습니다.

50년 전에 시골에서는 ‘거울’을 보석같이 여겼습니다.

그런데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보니

‘내 얼굴이지만 정말 못생겼다!’ 하며 화를 냈습니다.

그러다 화를 참지 못하고, 그 귀한 거울을 깨 버렸습니다.

또 선생은 기도 작았습니다.

키가 크게 해 달라고 기도하다가 안 돼서

신발 굽을 높여 신기도 했습니다.

◆ <육의 것>을 보면, 100가지를 봐도

좋은 것이 하나도 없었고 **잘하는 것**이 하나도 없었습니다.

그래서 오직 하나님, 성령님, 성자를 쳐다보며 살았습니다.

그리고 기도했습니다.

“세상에서는 누구도 나를 받아 주며 좋아할 자 하나 없어요.

지금도 동네 사람들은 나를 보고 미쳤다고 하고,
식구들도 나를 보면 미쳤다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말하니
집에 가기도 싫고 얼굴 보이기도 민망해요.

오직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만 사랑하고 살겠으니
그렇게 살게 해 주세요.

그러나 하나님의 말씀,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
하나님도 예수님도 제대로 알고 사랑하니, 가르쳐 주세요.

가르쳐 주시면 제대로 배우고 노력하겠습니다.
성경을 가르쳐 주세요.” 했습니다.

- ◆ 이때부터 선생은 더욱 깊이 기도했고,
성자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내게 오셔서
‘나의 신랑, 나의 선생’ 이 되어 나를 가르쳐 주셨습니다.

결국 하나님을 더욱 깊이 바로 알게 되었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.

<하나님의 창조 목적>을 알게 되었고
깊은 <사랑의 뜻>을 알게 되었습니다.

알았으니, 하나님의 최고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
인생 70년을 바치고, 50년 가까이 말씀을 외치고,
삼위가 시작하신 <성약의 섭리역사>를 37년 동안 이끌어 오면서
결국 <창조 목적, 사랑의 뜻>을 이루었습니다.

<잠시 쉬었다가>

- ◆ 왜 ‘사랑’ 을 보고 뵙으시는지 알아야 됩니다.

<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룰 자로>는 ‘사랑’입니다.

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‘삼위를 최고로 사랑하는 자’를 뽑아서
그 육과 영을 구원하시고 ‘사랑의 대상체’로 삼아 주시고,
결국 그 영을 휴거시켜 ‘천국 황금성’을 주십니다.

- ◆ 에덴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예정된 자로 뽑혔습니다.

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잘하다가
끝까지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,
결국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‘사랑’을 사탄에게 뺏겼습니다.

그로 인해 ‘사랑의 뜻’이 깨졌고,
핵심인 ‘사랑’이 깨지니 ‘뜻과 목적’도 깨지고,
아담과 하와는 육도 영도 ‘실패의 길’로 갔습니다.

- ◆ <인간의 사랑, 육적 사랑>은 남은 인생 동안 변하지 않고
충만히 사랑하며 산다 해도 일순간 끝나고,
사랑하고 난 후에는 기억도 안 납니다.

<육적 사랑>은 사랑할 때만 느낍니다.

<영의 세계>에서는 ‘영’이 계속 살아서 사랑하니,
계속해서 변하지 않고 끊임없이 사랑하며
그 사랑을 영원히 느끼며 기뻐합니다.

- ◆ 그러나 <육신>은 죽으면 ‘사랑’도 ‘모든 것’도 다 끝납니다.
고로 ‘영원히 죽지 않는 영’을 중심하라는 것입니다.

그 <영>을 위해 ‘육’을 귀히 여기며 살고,
<영의 영원한 삶>을 위해 ‘사랑’을 뺏기지 말라는 것입니다.

- ◆ 섭리사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,
10년 전에 ‘세상 사랑’ 때문에 섭리사를 떠났습니다.

10년 후에 확인해 보니,
‘육의 화려한 꽃과 같은 때’ 는 끝나고
‘인생 광야 길’ 을 가느라 딴 생각 할 겨를 없이
먹고 사는 데 정신 팔려 살고 있었습니다.

그 사람과 같이 뛰던 친구는 계속 섭리사에서 살면서,
지금도 ‘님 사랑’ 에 불타서 ‘사명’ 을 받고 뛰고 달리며
육도 영도 보람차게 살고 있습니다.

- ◆ <세상 사랑, 육의 사랑>은 사랑해도 일순간입니다.

그 사랑이 오래갈 줄 알고 호기심에
<세상 육의 사랑 꽃밭>에 뛰어들었으나,
꽃은 짧으면 일주일, 길면 한 달 정도만 푸른 들판에서 살다가
그때가 지나면 저 버리듯 세상 육의 사랑은
잠깐 자고 깨는 ‘꿈같은 삶’ 을 살고 끝나는 것입니다.

- ◆ 인생, 몰라서 <생각과 판단>을 잘못하면 너무 억울합니다.

겨울철 스키장은 한때이듯,
세상 사랑도, 세상만사 모든 것도 육에 속한 것은 다 한때입니다.

- ◆ <육신>이야 못 배우고, 못생기고, 키가 작고, 돈과 명예가 없어도
어느 누구라도! 가다 보면! 늙어서 죽고 끝납니다.

인생은 가다 보면 ‘예쁘고 잘생긴 외모’ 도 끝이 나고,

엄청난 ‘돈’도 ‘명예’도 더 이상 사용할 수도 없고,
죽어서 가져갈 수도 없습니다.

돈이 많고 명예가 하늘 높이 치솟은 재벌이라도
죽음을 앞두면 피할 수가 없습니다.

자기를 몇년만 더 살게 해 주면
자기가 가진 재산의 반을 떼어 준다 해도 안 됩니다.

인물, 지식, 돈, 명예... 모든 것이 다 끝이 납니다.

◆ 결국 <영과 혼>이 천국에 가고 영원히 삽니다.

고로 하나님은 <영>을 중심하십니다.

<육신>이 귀함은

<육의 행위>가 ‘영의 운명’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.

지식이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휴거되는 것도 아니고,
인물 좋은 사람이 구원받고 휴거되는 것도 아니고,
돈이 많거나 명예가 높은 사람이라고 해서
구원받고 휴거되는 것도 아닙니다.

누구든지 <자기 육>을 가지고 삼위일체를 사랑하며,
그가 보낸 구원자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
구원받고 휴거되어 ‘영원한 천국’을 상속받게 됩니다.

고로 하나님은 지식, 인물, 키, 돈, 명예를 안 보고

창조 목적을 이룰 자요인 <사랑>을 보시고

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랑하며 살 <영>을 중심하십니다.

◆ <영>은 성삼위와 구원자를 사랑하기에 따라서

- 키도 2~3m까지 커지고,
- 얼굴도 몸매도 아주 아름답게 변화되고,
- 권세도 얻게 됩니다.

<성삼위와 구원자를 사랑하는 강도>대로

영의 얼굴과 몸매의 아름다움이 좌우되고, 영의 키가 좌우되고,
영의 권세와 명예가 좌우되고, 영의 빛이 좌우됩니다.

<육>은 한계가 있으나

<영>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사랑하는 것에 따라서

지혜와 총명과 명철함이 ‘신’ 같이 됩니다.

고로 하나님은 <영>을 보고 <사랑>을 보고 사람을 뽑아서
하나님의 뜻을 펴시고 목적을 이루십니다.

- ◆ 모두 오늘 말씀을 들으니 불만이 없지요?

그러니 이제부터는 누가 뽑혀서 귀히 쓰여도
시기 질투하며 흠 잡지 말고, 칭찬해 줘야 됩니다.

하나님은 ‘사랑하는 것’을 저울에 달아서 확인하고 뽑으십니다.

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<사랑>이 변함없는 자는
<이 시대 휴거의 뜻>을 이루어
성삼위의 육이 되어 주와 함께 천 년사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.

<전환>

- ◎ 말씀 서서히 마무리하겠습니다.

- ◆ 섭리인 모두는 아담과 하와가 못 한 것을 하여 복직돼야 합니다.

<복직>은 ‘사랑’ 과 ‘자기 행위’ 로 됩니다.

절대 삼위일체와 보낸 자를 사랑하기.

삼위의 말씀을 행하기입니다.

누구든지 이와 같이 살아야 됩니다.

<사람>이 하는 것이 아니라 <하나님>이 하시니

부정도 없고, 속임수도 없고, 백도 없습니다.

◆ <복직된 하와>도

- 마음과 뜻과 목숨 다해 성삼위를 사랑하고,
- 그와 같이 주를 사랑하고,
- 자기 위치에서 그만큼 행했기에
‘하와 복직의 표상’ 이 되었습니다.

- ◆ <축복>도 ‘사랑’ 보고 주시고,
<사명>도 ‘사랑’ 보고 주십니다.

<하나님의 최고의 목적>도 ‘사랑’ 으로 이루고,

<인간 최고 영광의 자리인 휴거>도 ‘사랑’ 으로 변화되어 이룹니다.

- ◆ 가르쳐 주었으니, 이 말씀을 자기 것으로 삼고
밤낮 <삼위일체>를 사랑하고,
<삼위가 보낸 자>를 진정 사랑하기 바랍니다.

변함없는 사랑, 진실한 사랑, 영적인 사랑,

속이지 않는 사랑, 배신하지 않는 사랑,

어떤 상황에서도 등 돌리지 않는 사랑,

첫 마음 그대로의 사랑입니다.

- ◆ 가다가 등을 돌리면 변질됩니다.

<처음 사랑을 보고 뽀뽀한 자>도 가다가 등을 돌리면

<사랑 배신자>가 되어 ‘사명’도 ‘위치’도 뒤바뀌게 됩니다.

- ◆ <사랑>이 변함없어야 ‘삼위의 사랑체, 신부’로 변화되고 휴거되어 <천국 황금성>에 들어가게 됩니다.

또한 <주의 뜻>을 완전히 쫓고 <사랑>이 변함없어야

휴거 400, 500, 600선으로 올라가 완전하게 됩니다.

- ◆ 예수님도 ‘사랑’을 보고 뽀뽀했습니다.

그리고 하나님은 “**이는 내 사랑하는 자다.**” 하셨습니다.

그리함으로 예수님은 ‘아들의 자격자’가 되었고,

아들의 말씀을 전하여 ‘아들로 구원하는 구세주’가 되었습니다.

- ◆ 이 시대는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펼치시는 <성약역사>입니다.

<신약의 예언>을 이루며

<하나님의 창조 목적>을 완성하는 역사입니다.

아들보다 한 차원 높은 <신부 역사>입니다.

고로 이 시대는 <신부 시대, 사랑 시대>입니다.

삼위일체를 사랑하는데 ‘자녀로서의 사랑’이 아닌

‘신부로서의 사랑’으로 구원을 이루고 휴거를 이룹니다.

그리함으로 <아담과 하와의 복직 역사>를 이루며

<하나님의 창조 목적>을 이룹니다.

고로 하나님은 ‘지구상에서 삼위를 최고로 사랑하는 자’를 뽑아
그를 가장 먼저 ‘하늘의 신부’로 삼으시고,
인생들 앞에는 그를 ‘신랑 격’으로 세워
<휴거 역사>를 펴고 <천년왕국 혼인 잔치 역사>를 펴십니다.

◆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

<사랑>으로 우주 만물과 인생을 창조하셨고,
이 땅에 <사랑의 구원역사>를 진행하시며,
<사랑의 성약 신부 역사>로 마지막을 매듭짓고 끝장내십니다.

<말씀 마무리>

◎ 오늘 말씀 매듭짓겠습니다.

- ◆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‘사랑’을 보고 뽑으시는데,
사랑을 ‘두 가지’ 면에서 보고 뽑으십니다.

첫째, <대상 격>인 ‘인간’이 사랑하는 것을 보십니다.

둘째, <주체 격>인 ‘삼위일체’가 사랑하는 것을 보십니다.

이 두 가지의 사랑의 아름다움을 보고 사람을 뽑으십니다.

- ◆ 곧 우리 인간도 삼위를 사랑해야 되지만,
성삼위도 그 사람을 좋아해야 됩니다.

아무나 무력으로 끌어오면 ‘사랑’이 아니니,
체질이 맞고, 취향이 맞고, 뜻이 맞고, 생각이 맞는 자를 택하십니다.

◆ 주체와 대상, 곧 삼위일체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

- <사랑의 뜻>이 이루어지고,
- <휴거>로 창조 목적을 이루고,
- <휴거의 차원>을 높여 완성된 단계에 가고,
- <돌풍 치는 역사>가 일어납니다.

◆ 모두 말씀을 듣고

하나님은 ‘무엇을 중심’ 하시고

‘무엇을 보고 뽑으시는지’ 핵심을 알았으니,

이제부터는 부지런히 열심히 행하면 됩니다. (아멘!)

<진수성찬>도 ‘행하여 먹는 자’가 주인이듯이,

<위대한 생명의 말씀>도 ‘깨닫고 행하는 자’가 주인입니다.

◆ 사랑하면 예뻐 보입니다. 멋있게 보입니다.

그로 인해 자꾸 아름답게 신비하게 변화됩니다.

◎ 말씀 마쳤습니다.